

청년농업인 육성·정착 위한 임대농장 지원

전북도, 최대 3년간 실습농장 운영경험 통해 기술 습득·독립경영 실패 최소화 도모

전북도가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체계적인 영농실습과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시설재배(스마트온실 등)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농장을 3년간 임대해 시설(온실) 운영 경험을 쌓고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에 창업 실패 최소화 등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차인인도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은 본인의 책임하에 영농계획과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작물 인식 비용과 영농에 필요한 일체 생산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설농업을 처음 접하는 청년 농업인의 초기 투자비용을 덜어주고자 대부분 시·군에서는 스마트온실 1동(1,200㎡) 기준 연 임대료를 50만 원 이하로 책정해 지원한다.

또, 온실경영과 재배기술, 생산, 유통 등 전반적인 컨설팅(자문·상담)도 제공한다.



전북도가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체계적인 영농실습과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시설재배(스마트온실 등)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21개 동은 농장조성을 완료해 25명에게 임대하고 있다. 추가로 김제와 장수에 8개 동을 조성하고 있다.

김제시에 조성 중인 실습농장 7개 동은 6월 중 준공 예정으로, 7월부터 임차인을 맞이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김제시의 경우 임차인 선정 시 한농대졸업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지역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만 18~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이다.

신청 당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모집인원은 개소당 2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며,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대 3년이며,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김제시 농촌지원과(540-4510)에 접수하면 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로 청년농업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도 농업 선도를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가금육 관련 동물복지 산업 선도

도, ‘닭 동물복지 도축장’ 사조원 추가 지정 전국서 전북에만 유일하게 4개소 운영

전국에서 전북도에만 있는 도축장이 있다. ‘닭 동물복지 도축장’이 바로 그것으로, 올해 (주)사조원이 추가로 지정되며, 도내에 4개소가 운영된다.

전북도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설을 갖춘 닭 동물복지 도축장이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되며, 전북이 전국의 가금육 관련 동물복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복지 도축장’은 도축되기 전까지는 생명이 있는 닭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시스템을 갖춘 도축장을 말하며, 닭의 생산

부터 운송 및 도축까지 동물복지 환경을 실현할 수 있어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부안군에 있는 참프레에서 닭 동물복지 도축장을 지정받은 이후, 하림 익산·정읍공장에 이어 4번째로 (주)사조원에서 동물복지 도축장을 인증받아 전국에서 전북에만 유일하게 닭 동물복지 도축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은 전북도가 닭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연계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호상 기자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전북도, 양식 어가에 유류 보일러 대체할 ‘히트펌프’ 지원

전북도가 양식장 유류 보일러를 대체할 친환경적이고 효율성 높은 ‘히트펌프’를 양식 어가에 지원한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양식 및 종자생산 어가의 유류 보일러 사용을 대체, 폐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 어업경비를 절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히트펌프’는 해수 또는 양식장 배출수 등에서 열을 흡수해 양식에 필요한 온수를 생산하는 장치로, 기존 유류 보일러에 비해 2~3배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에너지 전환·발생 장치다.

특히,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주 열원인 폐수는 입수온도(20~25℃)가 높아, 사육수 온도(25~30℃)로 열을 올리는데 전기에너지 소모가 적어 효율적이다.

올해는 17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수, 순창, 고창 등 3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양식장 50개소에 히트펌프를 지원해왔다.

히트펌프 설치를 희망하는 양식 어가는 관할 시·군 양식 담당 부서에 신청, 현장 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설치 적합 여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식장 규모에 따라 히트펌프의 용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설치비의 80% 가량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이 도내 양식장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국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제7대 전북공무원노조, 상생·협력 가치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위한 첫걸음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대통령 표창 도전

제7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 송상재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대통령 표창에 도전장을 내민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노조법 시행(2006.1.) 이후, 건전 노사관계 모델 발굴 및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도입했다.

‘바람직한 노사 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적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행정기관을 노사관계 전문가 등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차(서면), 2차(현장, 대면) 심사 후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평가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전북도와 전북노조는 우수한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노조와 전북도는 현재까지 ▲ ‘배려를 전북’ 실천확산 확대, ▲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 ▲ 코



제7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대통령 표창에 도전장을 내민다.

로내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 동참, ▲지역 사회공헌 활동 강화,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이행을 제고 등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북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가치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도전이다”며 “앞으로 공공·상생·연대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조합원과 사회 약자들을 보듬고 일으며 세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면서 건강한 노동 존중 사회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레지오넬라증’ 주의 당부

전북도가 ‘레지오넬라증’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병원과 공동주택의 온수, 목욕탕 욕조수 등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건물의 급수시설, 목욕탕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에

어로졸을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한다.

레지오넬라 폐렴 발생 시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50세 이상, 만성 폐질환자,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레지오넬라 폐렴의 치명률은 약 10%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명률이 증가한다.

/유호상 기자

남원시 공고 제2021-92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 ‘안’ 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면적	면적률(%)	비고
계획관리지역	-	중)59,790	59,790	100.0	
농림지역	59,790	감)59,79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남원44	남원시 우정면 중동리 449 일원	농림지역	59,790	100% 이하	LX 노선확충을 위한 전용을 위해 당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면적률(%)	최소면적률(%)	비고
신원	502	연구시설	LX 노선확충용	남원시 우정면 중동리 449 일원	-	중)59,790	59,790	국회	

•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502	연구시설(LX 노선확충용)	연구시설 변경 -59,790㎡	공공분야 노선사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LX 노선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3. 공람 기간: 신문공고 익일 후 14일간
 4. 공람 장소 및 주민 의견 제출처: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도서: “실용생략”(관련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니다)

2021년 6월 11일 남원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